


성탄의 의미 (意義)

이 명 직 목사(1890. 12. 2~19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이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 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 1 : 21).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 : 29).

 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한다. 상점들마다 성탄축하 선물을 대매출이라는 광고판을 내걸고 손님들을 유인하고, 각 교회학교에서는 성탄축하 행사 준비에 바쁘고, 상인들은 성탄축하 예물을 차에 싣고 배달하느라 이 집 저 집 찾다다니며, 우체국에서는 성탄축하 엽서(카드) 배달에 분망(奔忙)한다. 이러한 모습들로해서 궁둥설한(窮冬雪寒-추운 마지막 겨울철)에도 마치 활기에 넘치는 봄날을 당한 듯한 묘한 기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성탄을 축하하는 인류가,

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지, 성탄의 의의를 알고 축하한다면 그것은 참된 축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연중행사의 하나로 여기거나, 상품을 많이 파는 대목으로 여기거나, 서로 예물을 주고 받으며 축하인사를 나누는 계절로 삼거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새 옷 입고 강단에서 노래나 율동이나 성경 암송하는 절기로만 알고 떠든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하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흥행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영심을 조장하는

하심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며, 그의 대사명이다. 그런즉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성탄의 의미를 알 것이고 또한 성탄을 축하할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 “죄에서 구원” 한다는 말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즉 인류를 모든 범한 죄에서 구원하심과 또한 가지는 범죄하게 하는 경향(傾向)에서 구원하신다는 지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진심으로 찬송하며 축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중국(中國)에 절여(節女)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장안 대창리 사람의 처였다. 그 남편의 원수가 있었는데, 틈을 타서 그 남편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기회와 방법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 원수가 절여의 친정 아버지를 잡아다가 위협하며 네 딸 절여로 하여금 그 남편을 잡아내게 넘겨주도록하라 하니 절여의 부친이 그만 그 흉계에 빠져 자기의 딸 절여를 불러 울며 원수에게 불모 잡힘과 그 사정을 말하고 남편을 원수에게 넘겨주라 하였다. 이에 절여는 생각컨대 만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것이니 불효가 되고, 또한 남편을 원수에게 넘겨주자니 불의라. 불효하고 불의함으

기회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왜 성탄을 축하하며,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기념해야 하는가를 반성하는 것은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의식도 경험도 없이, 풍성학루(風聲鶴淚-하찮은 일에 겁을 먹고 놀람을 이르는 말)로 떠들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각오나 경험이 있는 다음에 웃어도 좋고, 울어도 좋을 것이다. 만일 아무 깨달음도 없이 그저 남이 웃으니까 웃고, 남이 뛰니까 나도 뛰다면 그는 한 없이 어리석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는 과연 누구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로 사느니 차라리 내 자신이 몸으로써 친히 당하라라 걱정하였다. 그래서 절여는 그 아버지의 청을 허락하고, 내일 밤 이층으로 올라오면 창문을 열어 놓고 기다릴 터이니 동편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 자는 사람이 곧 남편이니 원수로 하여금 원대로 하게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절여는 집에 돌아와 남편으로 하여금 다른 방에 누워 자게 한 다음에 머리를 감고 이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놓고 동편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있었다. 남편의 원수는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이르러 머리를 잘라 가지고 돌아 가서 보니 그의 처 절여의 머리라. 원수가 보고 크게 슬퍼하며 절여의 의로운 죽음을 보고 감동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룩한 날을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맞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5: 21).

성결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탄이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없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험이 없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한 가지 성탄의 깊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니”이 죄는 죄의 분자(分子)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자(原子) 까지 포함하였으니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인류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멸하시고(요일 3: 8), 죄에서 인류를 근본적으로 구원코자 하심이다. 이와 같은 구원을 체험한 자는 성탄의 의의를 명백히 이해할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 몇 천년을 두고 우리 인류가 고통하며 속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였는가? 곧 속에 있는 죄악이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 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 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알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끈고한 사람이로다” (롬 7 : 19-24) 하였으니, 이는 바울 한 개인의 경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삶이 과연 다 이와 같은 고민 중에서 구원을 받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출가(出家)하여 깊은 산중에 들어가 명상함으로 구원을 얻어 보려 하고, 혹은 금욕주의(禁慾主義)로 구원을 얻어 보려하고, 혹은 난행고행(難行苦行)으로 구원을 얻어보려하고, 혹은 선을 힘써 실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보려 하여 이 사람들은 성인이라는 호칭을 얻으나, 그러나 자기의 구원이 명백하지 못하고, 다만 수고만 더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 : 28) 하셨다. 이것이 성탄의 진의(眞義)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고민 중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으나 다 이상(理想)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나무에 가지를 다스리고, 시내의 물 흐름을 다스림이, 모두가

뿌리를 다스리지 않고 가지를 다스리려 하고 원천(源泉)을 돌아보지 않고 물 흐름을 다스리려 함과 같이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근본문제가 잘 해결되면 능히 초연(超然)한 인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본문제는 다스리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 다스린다면 일시적 미봉책은 될는지 모르나, 이는 마치 흥수를 모래로 막는 것과 같아 한 평생 헛수고만 할 뿐이다. 그러나 죄악에 매였던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 비로소 놓임을 얻게 되었고 (요 8 : 36), 십자가로 승전가를 부르신(골 2;15) 주와 함께 승전가를 부르게 됨을 찬송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을 찬송하며, 이러한 체험에서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에서 우리는 또한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필 12월 25일 뿐만이 아니라 연중 12개월, 매일 24시간 찬송해야 할 것이다. (본란의 이 설교는 이명직 목사의 설교집 제1권에 수록된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균 목사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편집자주)

45 聖